

미술실

야영생들은 휴식의 여가에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미술실에서 그림과 서예, 공예, 수예, 조각 등을 습작할수 있다.

《민족의 날》을 맞으며 야영생들은 자신들이 습작한 작품들을 솜씨전람실에 전시해 놓고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선물로 교환하기도 한다.



솜씨전람실

